

부채장수 김서방전

< 독서활동지 >

부채장수 김 서방을 따라 길을 나서 보세요!
전주의 옛사람들과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 대상으로, 전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옛날 전주에 살았던 사람들과 생활방식, 생각 등을 미래 세대에 전해주고 싶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자들이 우리말의 재미를 솔솔 느낄 수 있도록 의성어 의태어를 구성지게 배치하였습니다.

- 이영희 작가 -

”

초등 교과 연계 관련

학년/ 학기	과목	단원	키워드	비고
1/1	국어	4. 여러가지 낱말을 익혀요 6. 또박또박 읽어요		
	바슬즐	사람들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예:태극기,애국가, 한복, 등등)	
1/2	국어	5. 생각을 키워요		
		6.문장을 읽고 써요 8. 느끼고 표현해요.	그림책 감상하고 연극하기	
	바슬즐	약속		
2/1	국어	2. 말의 재미가 솔솔	의성어 의태어 흉내내기	
		3. 겪은 일을 나타내요		
		4.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		
		5. 마음을 짐작해요		
		6.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7.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		
2/2	국어	1. 장면을 상상하며		
		2. 서로 존중해요		
		3. 마음을 전해요		
		7. 내 생각은 이래요		
		8. 나도 작가	마음에 드는 한 장면 그리기/ 패러디 해서 글쓰기	
바슬즐	계절	단오, 하지		
3/1	국어	읽은 책을 소개해요		
		1. 생생하게 표현해요	감정을 담아서 실감나게 읽어요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6. 자신있게 읽고 써요		
사회	우리가 사는 곳	■ 전북교육청-우리 고장 전주-인물		
3/2	사회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	오일장(전통시장)	
4/1	국어	2. 내용을 간추려요		
		4.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6. 경험을 표현해요		
	사회	2.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	한벽당, 전주시(서울시) 미래유산/ (나만의 미래유산)	
		3.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알아보기	
5/1	국어	7. 기행문을 써요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경험을 글로 써 보기	
		10.주인공이 되어	내가 부채장수라면?/ 내가 선비라면?	
5/2	국어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학	옛사람들이 즐긴 예술/ 놀이	
5학년	도덕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5.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6/1	국어	1. 비유적 표현		
		5. 속담을 활용해요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사회	1.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6/2	국어	2. 관용표현을 활용해요	‘입이 귀에 걸렸지=기분이 매우 좋다’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갖는 것.	

이야기 상상하기

겉표지를 보고 그림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아요.



1. 그림책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까요?

2.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곳일까요?

시간:

공간:

3.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나라면?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써 봅시다.

장면 1

내가 부채장수 김 서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한사람이 피로해 부채가 한 개라도 팔리지 않는 거야.
"어허! 왜 이렇게 팔리지 않아요? 간담이 마르네!"
김 서방은 오늘도 팔릴 부채를 손이 바짝바짝 닦아내며,
"차라리 안 팔은거야 잘 서있고네."
방이 찌꺼기 한송이를 사던 김 서방은 주춤한 얼굴로 말했다.

장면 2

내가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바탕 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울기 시작했다.
"방이! 방이를 잡으려고 달려다니다가 방이 김 서방 걸까지 잡어."
"우리 때문에 시원하게 피 부채나 부채 팔아요?"
"그러다 혼나면 어쩌려고?"
"걱정하지마, 드르렁 드르렁 꼬꾸라지 끝이야."
아이들은 기겁기처럼 맞은 손으로 머구 부채질을 했었지.

장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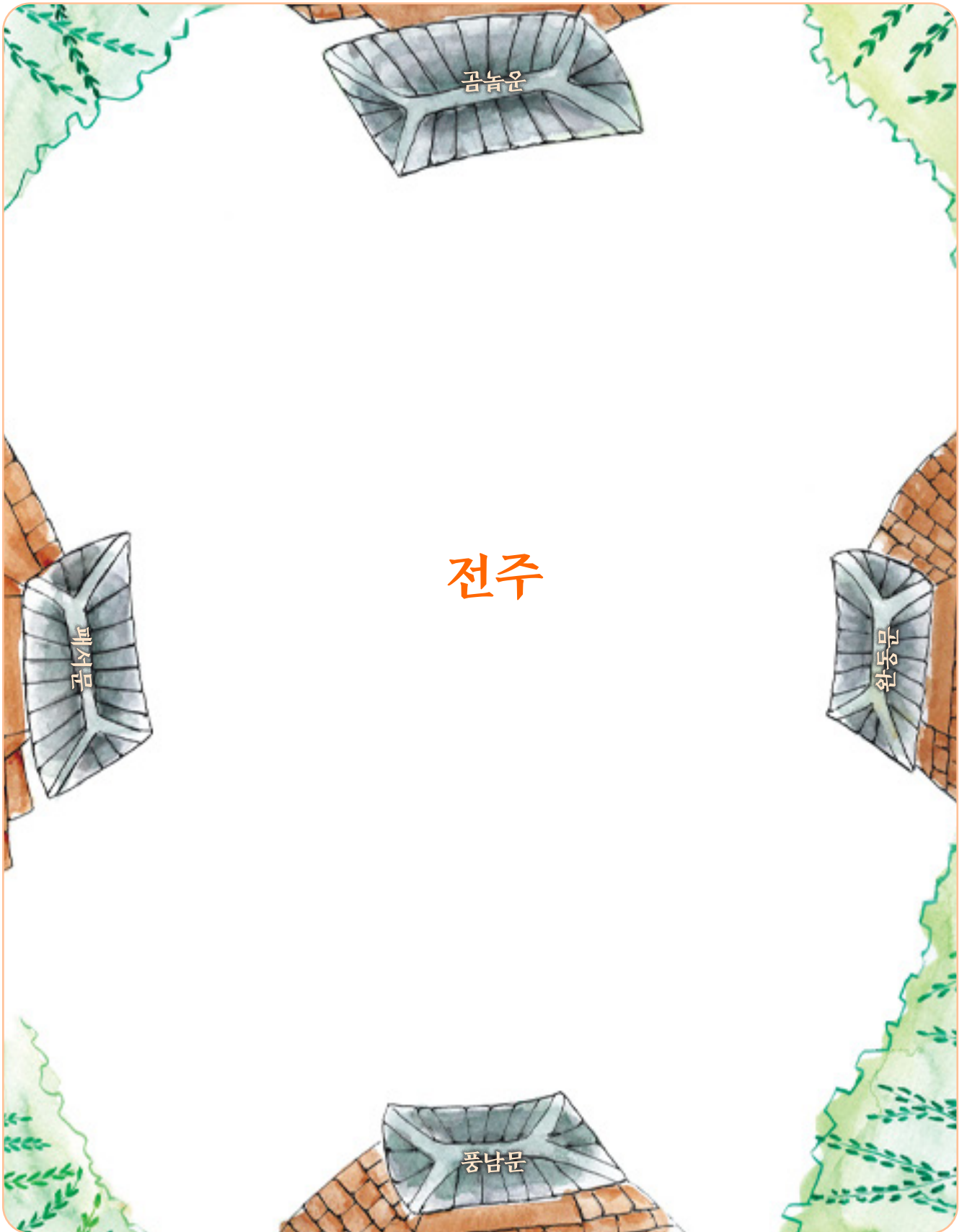
내가 선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난데없는 소문을 풍기려야 배반적인 사람이 다가왔어.
"백들이야! 정말 천벌이내리니 그만해두고, 나라에 팔려 보시오."
김 서방이 기척이 보자 여섯에 팔방을 놓던 그 선비인 거야.
"조금 전에도 팔려있는 소리들 떠다니 무슨 말난 계주가 있어서
이 부채를 문지르면 팔려요? 구워 먹은 살이 먹은 상금 받고 거인 잡아나 죽 거시오."
"선생! 왜가 무슨 소문을 퍼뜨렸소. 선생은 어찌가 아나하리다."
선비는 말도 못들 못한 목소리를 지으며 말하게 됐었지.
달리 보충한 수가 없던 김 서방은 시큰둥한 얼굴로 부채를 주고 뒷걸음치었어.

생각 그물을 그려봐요

‘전주’하면 생각나는 것을 많이 써 봅시다.



이야기 꾸미기

제시한 그림책의 장면에 어울리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책에서 만나는 전주 한옥마을 1코스

(3시간 내외 소요)



전라감영



풍남문



전주부채문화관



경기전



한벽당



자만동 창암 암각서

사진 출처; Copyright © JEONJU CITY. ALL RIGHTS RESERVED.

그림책에서 만나는 전주 한옥마을 2코스

(3시간 내외 소요)



자만동 창암 암각서



한벽당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 문화관



강암서예관



풍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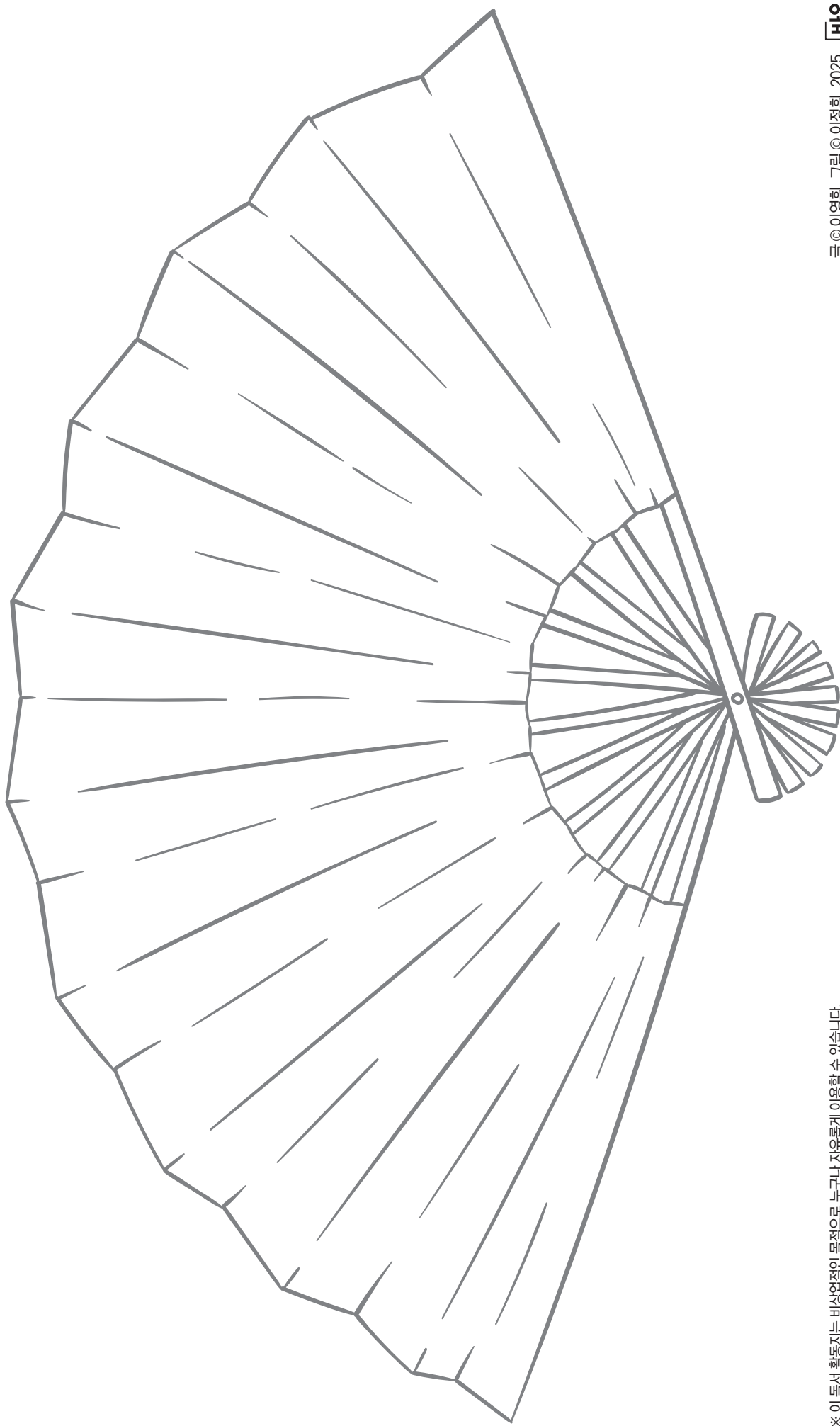


전주 천년한지관

차량이동: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

사진 출처; Copyright © JEONJU CITY. ALL RIGHTS RESERVED.

나는 부채 디자이너



※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 © 이영희 그림 © 이정희, 2025 [HIO]



낱말 퍼즐

그림책을 감상하고 낱말 퍼즐을 맞춰보세요.

죽	벽	선	하	당
오	남	삼	일	지
부	벼		채	단
루	이	붓	합	밖
오	만	장	한	장

[죽/벽/선/하/당 / 오/남/삼/일/지 / 부/벼/삼일/채/단 / 루/이/붓/합/밖 / 오/만/장/한/장]



의성어·의태어 1

‘보기’에 제시된 의성어·의태어로 짧은 글을 써 보세요.

○○○
< >
🔍 **보기** ↻
+ 📄

- **신기방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색다르고 놀라움
- **탕탕**: 헛된 장담을 거드러거리며 함부로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우르르**: 사람이나 동물이 한꺼번에 바쁘게 몰려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기세등등**: 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없이 매우 높고 힘찬 모양
- **뿔뿔이**: 제각기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휘휘롭게**: 부드러우면서도 다소 쓸쓸하게
- **바짝바짝**: 물기가 자꾸 마르거나 줄어들거나 타 버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주섬주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경중경중**: 긴 다리를 모아서 가볍고 힘있게 자꾸 솟구쳐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와글와글**: 한곳에 복잡하게 모여서 자꾸 떠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엎치락뒤치락**: 자꾸 이리하였다가 저리하였다가 하다
- **구불구불**: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술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 나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몽땅**: 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
- **터벅터벅**: 힘없이 다리를 조금씩 떼며 무겁게 느릿느릿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복적복적**: 많은 사람이 조금 넓은 곳에 모여 자꾸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훨훨**: 흥가분한 기분으로 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드르렁드르렁**: 크고 요란하게 자꾸 코를 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 **천방지축**: 종잡을 수 없이 덩벙대는 일
- **살랑살랑**: 떠들지 않고 조용히 가만가만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부랴부랴**: 매우 바쁘게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술찬이**: ‘상당히’의 전라도 방언

[예] 나는 등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갔다.

- ①

- ②

- ③

의성어·의태어 2

‘보기’에 제시된 의성어·의태어를 몸으로 흉내 내어 보세요.

활동방법

- ① 낱말카드를 자른 다음 잘 섞어서 뒤집어 놓는다.
- ② 가위바위보로 차례를 정한 뒤 각 조에서 5개의 카드를 임의로 골라 갖는다.
- ③ 차례가 되면 조원들이 동시에 몸짓으로 낱말을 표현하고 다른 조는 알아맞춘다.
- ④ 많이 맞춘 조가 이긴다.



보기



- **신기방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색다르고 놀라움
- **탕탕**: 헛된 장담을 거드러거리며 함부로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우르르**: 사람이나 동물이 한꺼번에 바쁘게 몰려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기세등등**: 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없이 매우 높고 힘찬 모양
- **뿔뿔이**: 제각기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휘휘롭게**: 부드러우면서도 다소 쓸쓸하게
- **바짝바짝**: 물기가 자꾸 마르거나 졸아들거나 타 버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주섬주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경중경중**: 긴 다리를 모아서 가볍고 힘있게 자꾸 솟구쳐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와글와글**: 한곳에 복잡하게 모여서 자꾸 떠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엎치락뒤치락**: 자꾸 이리하였다가 저리하였다가 하다
- **구불구불**: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술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 나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몽땅**: 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
- **터벅터벅**: 힘없이 다리를 조금씩 떼며 무겁게 느릿느릿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복적복적**: 많은 사람이 조금 넓은 곳에 모여 자꾸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훨훨**: 흥가분한 기분으로 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드르렁드르렁**: 크고 요란하게 자꾸 코를 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 **천방지축**: 종잡을 수 없이 덩벙대는 일
- **살랑살랑**: 떠들지 않고 조용히 가만가만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부라부라**: 매우 바쁘게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술찬이**: ‘상당히’의 전라도 방언
- **꽃신**: 꽃무늬를 수놓거나 여러 가지 빛깔로 곱게 꾸민 어린아이나 여자들의 신
- **윤슬**: 달빛이나 햇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



의성어·의태어 2 <날말카드 ①>

—— 자르는 선

<p>신기방기</p> <p>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색다르고 놀라움</p>	<p>탕탕</p> <p>헛된 장담을 거드럭거리며 함부로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우르르</p> <p>사람이나 동물이 한꺼번에 바쁘게 몰려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기세등등</p> <p>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없이 매우 높고 힘찬 모양</p>
<p>뽄뽄이</p> <p>제각기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휘휘롭게</p> <p>부드러우면서도 다소 쓸쓸하게</p>	<p>바짝바짝</p> <p>물기가 자주 마르거나 줄어들거나 타 버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주섬주섬</p> <p>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경중경중</p> <p>긴 다리를 모아서 가볍고 힘있게 자꾸 숫구쳐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와글와글</p> <p>한곳에 복잡하게 모여서 자꾸 떠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엷치락뒤틀치락</p> <p>자꾸 이리하였다가 저리하였다가 하다</p>	<p>구불구불</p> <p>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술술</p> <p>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 나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몽땅</p> <p>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p>	<p>터벅터벅</p> <p>힘없이 다리를 조금씩 떼며 무겁게 느릿느릿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복적복적</p> <p>많은 사람이 조금 넓은 곳에 모여 자꾸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훠훠</p> <p>흥가분한 기분으로 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드르렁드르렁</p> <p>크고 요란하게 자꾸 코를 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p>	<p>천방지축</p> <p>종잡을 수 없이 덤벙대는 일</p>	<p>살랑살랑</p> <p>떠들지 않고 조용히 가만가만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부랴부랴</p> <p>매우 바쁘게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p>	<p>솔찬이</p> <p>'상당히'의 전라도 방언</p>	<p>꽃신</p> <p>꽃무늬를 수놓거나 여러 가지 빛깔로 곱게 꾸민 어린아이나 여자들의 신</p>	<p>윤슬</p> <p>달빛이나 햇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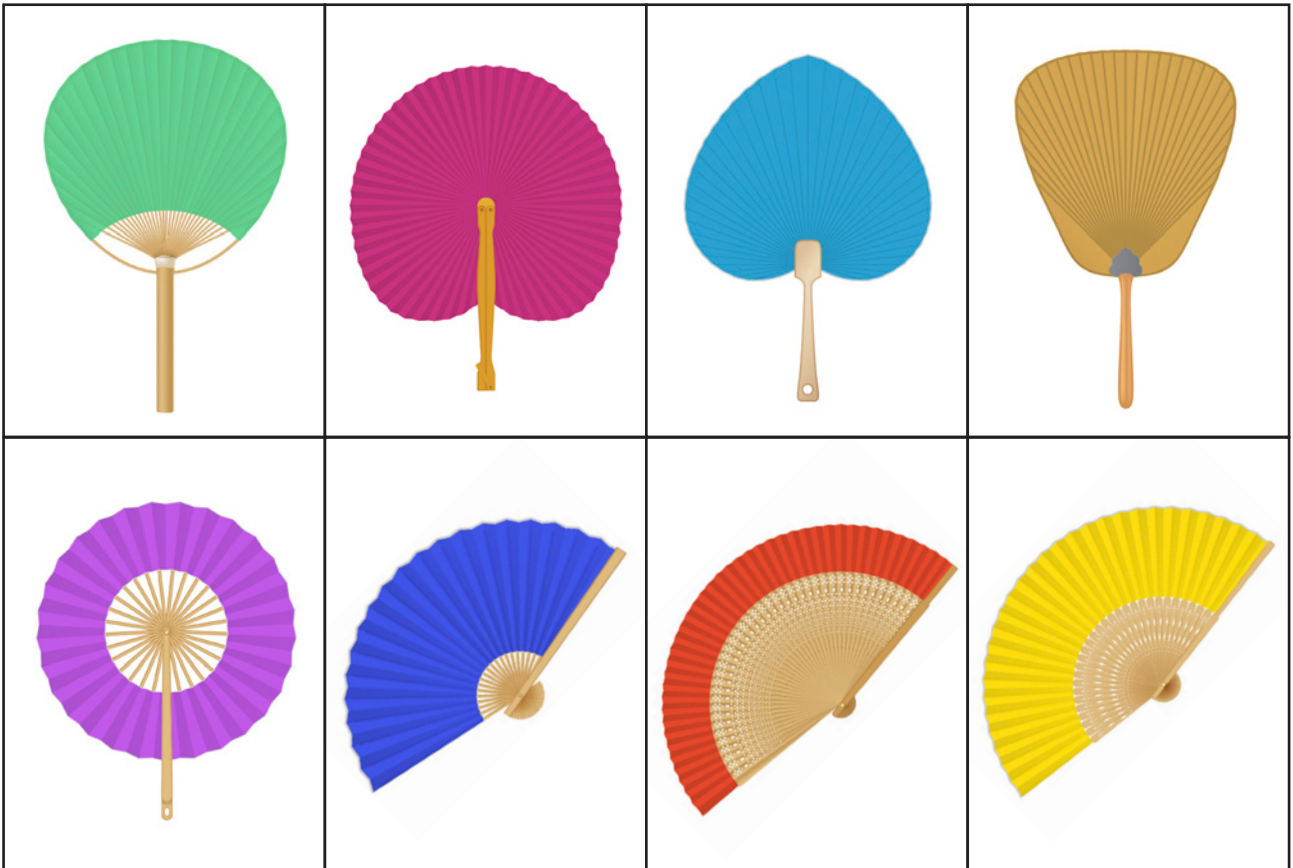


메모리 게임: 부채를 기억하라!

아래 8개의 서로 다른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그려진 카드를 잘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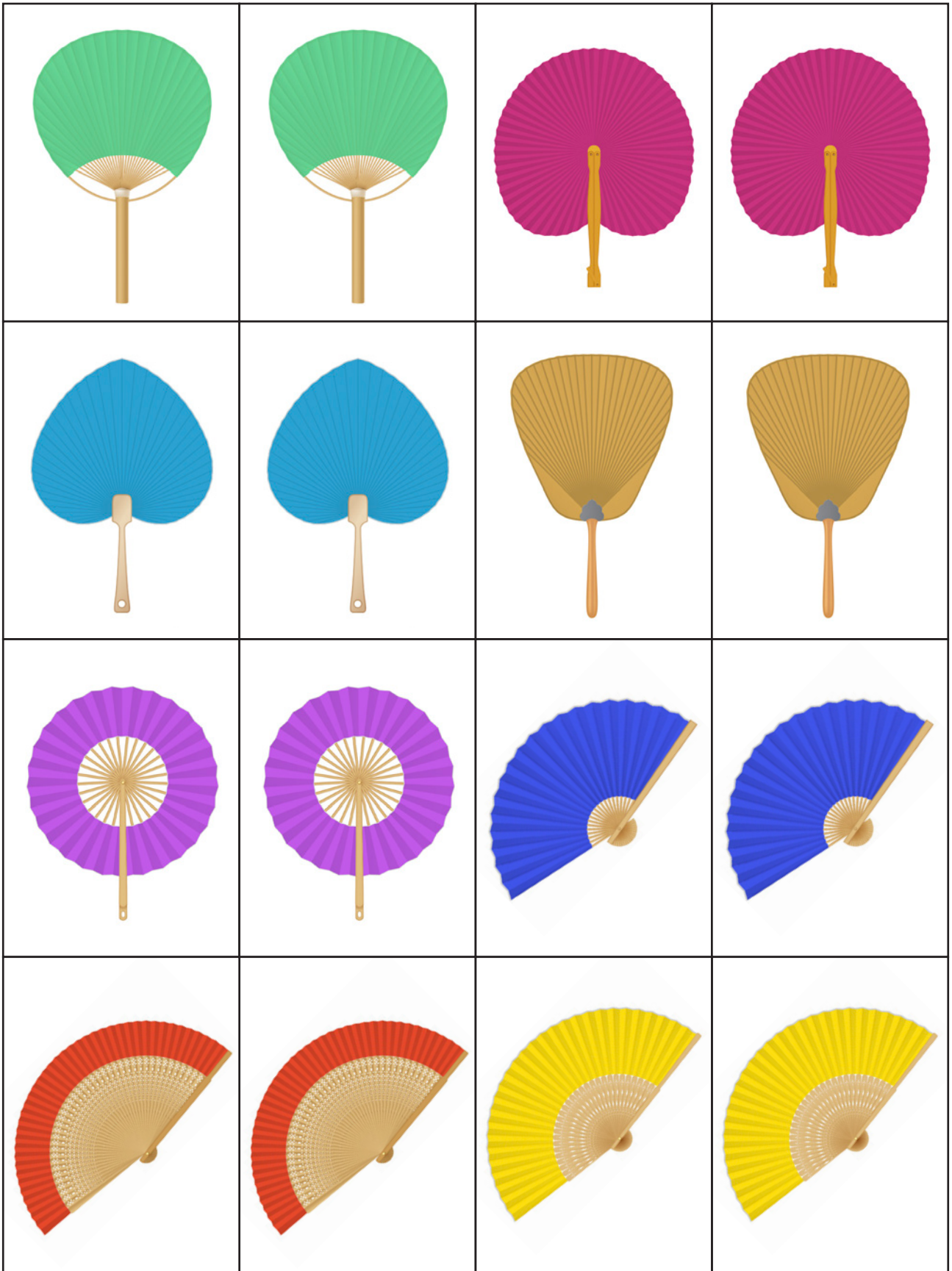
활동방법

- ① 부채 16장을 가위로 자른다.
- ② 자른 부채를 잘 섞어서 뒤집어 놓는다.
- ③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한 장의 부채카드를 뒤집고 난 후 똑같은 부채카드를 찾는다.
- ④ 똑같은 부채카드를 찾았다면 가져가고 다른 카드라면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뒤집어 놓는다.
- ⑤ 부채카드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부채를 기억하라! <부채카드>

— 자르는 선



창암 이삼만(1770~1847) 영조46년 태어남-정조순조.헌종13년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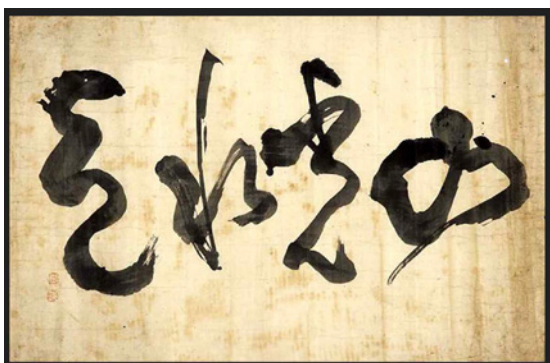


조선 후기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은 서울의 추사 김정희, 평안도 눌인 조광진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손꼽히는 서예가다. 창암의 서예는 조선 말 석정 이정직과 일제 강점기 벽하 조주승, 유재 송기면, 효산 이광렬을 거쳐 석전 황욱과 강암 송성용으로 이어지며 전주와 호남의 서예 발을 일궜다.

그의 작품은 전북 도내·외 곳곳의 사찰이나 정자의 편액(扁額)으로 남았다. 전주 남고산성 서문지에 있는 남고진사적비 휘호를 비롯해 전주 제남정(濟南亭), 전남 하동 칠불암(七佛庵)의 편액, 전남 구례 천은사와 전북 김제 금산사 보제루(普濟樓)의 현판 등이 있다.

2006년 '창암 이삼만의 회동서법과 금석문' (전주문화원, 신아출판사)에 수록된 창암 이삼만 인물 초상. (desk@j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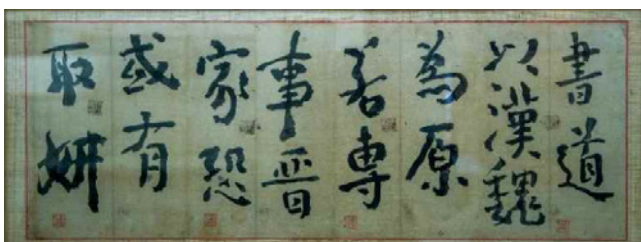
<대표작품>



▲산광수색(山光水色)
사진출처: 새전북뉴스 / 2013.01.03



▲초서 병풍
사진출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강암서예관(剛菴書藝館) 2층 전시



▲전남 구례 천은사 보제루 현판